

중국 북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노금송**

< 次 例 >

1. 서론
2. 한국어 교육 현황
3. 향후 과제
4. 결론

1. 서론

20세기 4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반세기 동안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오다가 1992년의 중한 수교를 맺으면서 서광을 맞이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국력 위상, 한류 열풍, 중국 경제 발전 등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현재 중국 내의 교육기관의 수와 학습자 규모, 한국어 교육 연구 자료 등 지표에서 중한 수교 이후 17년간 한국어 교육이 고속 행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어학과 개설 수는 40년대 1개(북경대), 50년대 1개(대외경제무역대), 60년대 1개(낙양외대), 70년대 2개(연변대, 북경제2외대)에서 2007년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국어문화원, 다문화연구소 주최 2008년 제5회 한국어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 해외 한국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2008.12.10) 본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까지의 58개로 늘어났다. 재학생 수도 60년대의 10여 명에서 1.2만 명이 늘어났으며 교사 수도 10여 명에서 35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¹⁾. 여기에 사립대학이나 전문대 및 사설학원의 수강생들까지 다 합할 경우 그 규모는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육기관의 폭증, 교육자 및 피교육자들 규모의 확대는 한국어 교육이 중국에서 호황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전성기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중국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다른 하나의 지표로 최근 몇 년간 쏟아져 나오는 교재나 연구물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서점인 북경의 도서빌딩에 산더미처럼 배열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 코너에서, 해마다 중국과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²⁾에서,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는 한국어 교육 개인 성과물들에서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를 모았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이 최근 10여 년간 급성장을 보인 실례를 한국어 교육계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물의 발전 법칙이 그러하듯이 한국어 교육도 그 전성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1) 김병운(2007b:1)의 통계 숫자를 따른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의 통계숫자만 포함된다. 사실 이 숫자는 사립대학과 2008년의 개설 대학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 실제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국가교육부 '2007년도 고등학교 전공 개설 등록 및 심사 비준 결과에 관한 교육부의 통지(教育部关于公布2007年度高等学校专业设置备案或审批结果的通知,教高〔2008〕2号)'에 따르면 2007년 한국어학과의 설립을 비준한 대학으로는 길림사범대학 등 8개소가 되고 2008년 말에 또한 화중사법대학 등 12개 대학에 한국어학과의 설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 개설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전국학술대회로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두 개 기관에서 개최하였었다. 연변과기대에서는 1997년부터 1년에 한번씩 개최하였고 그 후 2004년부터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단되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2001년에 빌족하여 지금까지 해마다 한 번씩 정기학술대회를 모집하였으며 준비단계의 논문집까지 포함하면 모두 7권이 발간되었다. 그 외 각 지역 범위로 일 년에 최저 한번 정도의 각종 형식의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나 교육 경영자들은 물론 현장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실 속에서, 또 개혁개방 후 줄곧 두 자리 수로 급성장하던 중국 경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이 시기에, 한국어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못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지역에서의 논의들로 보면 노금송(1999), 김기일(2000), 박종금(2000), 최희수(2000), 강보유(2002), 하동매(2002), 손정일(2003), 김경선(2005), 신향화(2007), 김병운(2007a), 김병운(2007b), 조항록(2007), 이은숙(2007), 제효봉(2008) 등³⁾이 있다. 이런 논문들에서는 중국의 한국어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 과정, 교재, 교사 자질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항록(2007)이 범세계적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어 발전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컨트롤은 한국어 교육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연구들을 기반으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재 및 한국어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 지금 이 시기 도전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향후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2008년 11월 13일-15일까지 북경 지역의 9개 대학 관련 교육 담당자에게 설문지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3) 이외에도 한국과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나 본문에서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2. 한국어 교육 현황

북경지역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를 살펴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향후 발전에 과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를 김경선(2005)에서는 1단계(조선어 교육 시기, 1944-1992년)와 2단계(한국어 교육 시기, 1993-현재)로 시기 구분을 하였고, 김석기(2005)에서는 제1기(준비기, 1946-1971년), 제2기(도약기, 1972-1992년), 제3기(발전기, 1992-1999년), 제4기(성장기, 2000-현재)로 구분하였다. 조항록(2005)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실제 변화를 기준으로 1단계(태동과 점진적 발전기, 고대-1970년대 초반), 2단계(도약기,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3단계(전환기, 1990년대 중반-현재)로 구분하였고 민현식(2005)에서는 한국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 교재 개발사 등 교육 내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현대 한국어 교육사를 준비기(1945년-1970년대 말), 발전기(1980년대-1989년), 성장기(1990년대-현재)로 구분하였다⁴⁾. 이와 같이 학자마다 한국어 발전 단계에 대한 시대 구분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견해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경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해 본다.

1단계(준비기, 1940년 중반~1992년): 1992년 전에 설립된 북경 지역 한국어학과는 교육 내적인 요소 교사, 교재, 교수방법, 연구 등에 있어서 교육 목표 달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 배양 목적도

4)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단계 구분은 장효단(2007,11-12)에서 정리한 것이다.

단순히 정부적 차원에서 우호국가인 조선과의 교류를 위해서였다.

2단계(발전기, 1993년~2000년대 초): 1992년 중한 수교가 이루어진 후 북경 지역의 대학들에서는 한국 대학과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학과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경제2외대, 북경외대, 북경언대 등 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설립하여 학생 모집을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무려 19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시기는 한국 자본이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유치되어 한국어 인재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한국어 인재 수요량이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술 연구 면에서 볼 때 1997년부터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재 편찬 등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3단계(전성기, 2000년대 초~현재): 필자는 이 시기를 한국어 교육의 전성기라고 명명하고 싶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21세기에 접어들어 교육기관과 학생 규모, 교육 자료, 학술 연구 등 지표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어 교육기관의 지위 격상,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확보, 활발한 학술 연구, 활발한 인적 교류, 한국어 인재 수요 급증 등에서 전성기임을 확인한다.

다음은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전성기 단계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교육 기관과 학과과정, 교사와 학생, 교재사용, 학술연구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2.1. 교육기관과 학과과정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설립 년도와 학과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한국어학과 설립년도⁵⁾와 학과과정

대학명	학부(대학원) 설립년도	3년제	학부	석사	박사	특성화 과정		
						교환	2+2	기타
북경대	1946(1979)		✓	✓	✓	✓		복수전공
경제무역대	1952(1999)		✓	✓		✓	✓	동시통역
북경제2외대	1972(2008)		✓	✓		✓		
북경외대	1994(2007)		✓	✓		✓		복수전공
북경어언대	1995(2006)		✓	✓		✓		1+3
중국전매대	2002		✓			✓		3+1
중앙민족대	2004(2010)		✓			✓		
북경연합대	2005	✓						
북경공업대	2007(2010)		✓			✓		

* ()안의 년도는 대학원 설립년도

위의 도표에서 각 대학 한국어학과는 10여 년간 인재육성과 교육방안 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전만 보더라도 북경대와 대외경제무역대에서만 석사과정을 모집하였는데 2008년 이후로는 모두 5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모집하고 있고, 그 외 민족대와 북경공업대에서도 석사과정 모집 계획이 있어 향후 대부분의 대학에서 석박사생을 모집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한국어 배양 능력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경대는 2007년부터 박사 과정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교육체계의 틀이 잡혀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북경연합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에서는 한국 자매대학들과 자매교류 관계로 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고 북경어언 대와 대외경제무역대, 중국전매대에서는 한국 대학들과 '2+2', '3+1' 공동

5) 이은숙(2007:45)의 조사에 의하면 대외경제무역대학은 1966-1971년, 1977-1984년까지 학생 모집을 두 번 중단했다가 1985년부터 학생 모집을 재개하였다. 북경제2외대는 1972년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1기 학생을 모집하고 그 후 학생 모집을 중단했다가 1993년에 재개하였다.

배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교육부 소속 국가유학기금 관리위원회(国家留学基金管理委员委)에서는 해마다 전국의 한국어학과 대상으로 남북한에 각각 50명의 국가장학생을 선발해 반년동안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경대와 북경외대는 한국어학과 재학생이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일 한 한국어 인재 배양에서 벗어나 복합형 인재 배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대외경제무역대는 동시통역대학원까지 설립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의 시장성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경지역의 대학들은 10여 년 전에 비해 한국어 인재 육성 모델이 다양화되었음을 말해 주며 대학 교육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상위 학과의 하위 전공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최근 들어 독립된 하나의 학과로 격상하게 되었다. 이는 10여 년간의 발전을 거치면서 한국어학과의 지위가 대학 내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어학과는 대학 내의 독립학과 단위로 일정한 행정력을 갖고 있고 말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발전에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학과가 그동안 인기를 받으며 급속도의 성장을 보였지만 이런 급속도 성장의 내면에 안고 있는 문제를 곰곰이 살펴본다면 먼저, 북경지역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9개나 필요한가? 특히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 내에서 2008년에 충설한 한국어학과가 8개, 2009년에는 12개나 된다. 전국 각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우후죽순마냥 신설되고 있는데 학과개설의 필요성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신설 한국어학과는 교육 철학과 뚜렷한 교육 목표가 있는가? 만약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설했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특히 한국이 IMF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어 교육이 주춤거렸던 경험과 또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봉착한 현 시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 교육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2.2. 교육자와 학습자

221 교육자 혼황

북경지역 한국어 교사 현황을 교사의 구성, 최종학위, 교사 직급 등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둘 것은 북경대의 한국인 교사 한분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종신교사로 채용했기 때문에 최종학위와 직급 통계에 본 교사를 포함시켰다. 그 외의 한국인 교사들은 중국 대학 내 티오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최종학위와 직급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표 2〉 불경지역 한국어 교사 현황

북경 지역 한국어 교사는 1999년의 31명⁷⁾에서 2008년 12월까지 47명으로 9년간 50% 이상 늘어났다. 연령을 본다면 30대 및 이하, 40대, 50대가 각각 62%, 19%, 19%를 차지해 40세 이하의 교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40대, 50대 교사 인원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어 교육은 40세 이하의 젊은 교사들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 우여곡절로 말미암아 40대 후반 50대의 중견교사가 부족하지만 이 문제는 5~10년 사이에 차차 해결될 것이다. 현직 교사들의 전공을 조사해 본 결과 문학 전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어학 전공이 그 다음으로 차지해 다소 단조로운 특징을 나타냈다.

한국인 교사는 보통 한 대학당 1명 내지 2명, 많이는 6명까지, 합계 20명인데 1999년의 7명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학과의 학부, 석사 과정에 모두 투입되었다는 것을 조사로부터 알 수 있었다. 한국인 교사는 보통 한국 자매대학의 파견, 국제교류재단 파견, 혹은 현지 채용으로 충족된다. 북경지역의 한국인 교사는 보통 박사 학위 소지자가 위주이고 원어민 교사로서 분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교사들의 최종학위를 볼 때, 석사 48%, 박사 52%로 10년 전의 석사 학위 위주에서 박사 학위 위주로 점차 전환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석사 학위소지자라도 거의 대부분 젊은 교사들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3년 정도 지나면 박사 학위 소지자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교사들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강사 비율이 9:16:19로 비교적 합리적이다. 통계에서 보듯이 부교수가 16명으로 전체에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계층의 교사들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나 연구에서 왕성한 협기를

6) 중국 대학에서 강사 직급은 한국의 조교수에 해당하고 조교는 전임강사에 해당된다.

7) 이하 1999년의 통계는 모두 노금송(1999:245)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늘어난 젊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전체 한국어 교사들의 직급을 향상시켰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경지역 한국어 교사들의 학위, 직급 등 면에서 향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사 규모가 아직까지 기타 외국어학과에 비해 작으며 교수, 부교수의 더욱 높은 비례 확보, 한국 문학이나 어학 전공이 아닌 타전공 예를 들면 문화나 경제 출신 교사 선발 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2.2. 학습자 현황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북경지역 대학 재학생 현황

대학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석사	박사	합계
북경대	15	14	15	10	21	4	79
경제무역대	18	19	18	19	28		102
북경제2외대	45	48	46	24	3		166
북경외대	24	24	24	24	8		104
북경어언대	46	57	31	29	8		171
중국전매대	16		20				36
중앙민족대	25		25				50
북경연합대	27	28	25				80
북경공업대	9	19					28
합계	744				68	4	816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총 재학생 수는 1999년에 255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816명으로 그동안 561명이 증가하였다. 석박사생은 10년

전의 16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났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북경외대와 어언대는 2003년까지 격년제로 학생을 모집하다가 2004년 이후 매년 모집으로 전환하여(이은숙, 2004:47) 2008년 말까지 학생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었다. 중국 교육부는 1999년부터 대학 모집 정원⁸⁾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어학과 학생 모집도 중국 고등교육 정책의 힘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모집 규모와 차원이 현저히 향상되어 북경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대회, 백일장, 변론대회, 체육대회, 석사생논문발표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데 이는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학생간의 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흥취를 유발하고 학습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첫째는 교사에 비하여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의 소규모 그룹의 한국어 교육이 대규모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학습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북경지역의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을 얼마 만큼 보장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7년 한국 IMF 시기에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졸업생 취업률이 저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경제 위기는 2009년도 취업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3.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이 최근 들어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

8)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 뉴스 '올해 전국 고등 교육 입학 정원 대폭 증가(今年全国高等教育招生大幅增加)'(1999년 6월 25일)에 의하면 1999년의 대학 입학 정원이 44%로 대폭 증가되었고 그 후 대학 모집 정원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다시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성과물로 바로 교재를 들 수 있다. 손정일(2004:499~513)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130여 종이 되는 한국어 교재를 소개 분류하고 교재 개발 과제에 대해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판된 교재 수는 이 숫자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한국어 교재들을 보고 서점을 방문할 때마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국어 교육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북경지역 교재 사용 조사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각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중국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교재가 주를 이루나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 원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각 대학에서는 초급 단계의 통합, 듣기, 회화, 읽기 등은 물론 고급 단계의 문법, 번역, 통역, 문학, 비즈니스, 관광 등 교재까지도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10여 년 전의 교육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무조건 '가져다 쓰기'에 비해 지금은 교재 선정의 폭이 넓어져 갈팡질팡 혼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의 기본 요소의 하나인 교재 편찬에 한국어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용 자료가 일부 확보되었다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100% 만족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조사에 의하면 초급 단계의 교재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고급 단계에 사용되는 통합 교재라든가, 문학, 작문, 한국개황 등 교재는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시청각 교재가 지금까지 출판되지 않아서 시급히 필요하다. 또 지금 초창기에 처한 석사 과정은 교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출판되는 다양한 교재는 학습자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반면에 교재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결여되어 있다.

2.4. 한국어 교육 연구

연구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연구 성과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고등교육 전반에 비추어 볼 때도 재직 교사의 승진이 연구 능력과 연구 업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근 들어 한국어 교사 전원이 연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구 실적 또한 현저히 향상되었다.

먼저 학회 활동만 보더라도 2001년에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가 발족되어 1년에 한 번씩 전국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북경지역 대학들에서는 또 2006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교수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경대, 북경제2외대, 민족대 등 대학에서 북경지역을 위주로 한국어, 한국 문학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총적으로 볼 때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 혹은 교류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북경지역 대학 연구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교육 연구 지원이 늘어나 재직 교사라면 누구라도 소속 대학, 북경시교육위원회, 교육부에 프로젝트 신청이 가능함으로써 전반 연구 환경이 업그레이드되었다.

중국 지역의 한국어 교육 연구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국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의 논문집이고 다른 하나는 정기 간행물⁹⁾이다. 먼저 한국어 학술대회의 논문집 발간을 본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1997년부터 시작한 중국지역 한국어교육학술대회에서 발간된 논문집이 지금까지 7권,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에서 발간된 논문집이 7

9) 중국에서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아직까지 한국어 연구 정식 간행물이 없다. 물론 조선족 초중고등 어문 학습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술 간행물로 “중국 조선어 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다행히 근년에 한국어 봄이 일면서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을 많이 “중국 조선어문”에서 많이 게재하고 있는 편이다.

권, 발표된 논문도 349편에 달한다. 이상 논문은 주로 한국어로 한국어 문법, 말하기, 듣기, 교과과정, 한국 문화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이다. 다음은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 관련 논문들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5월까지 CNKI¹⁰⁾의 통계에 의하면 모두 118편(73(한국어)+45(조선어))이다.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68편(22(한국어)+46(조선어))인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CNKI에 수록되지 않은 '중국조선어문'이나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더 있겠으나 통계를 잡기에는 쉽지 않았다.

한국어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병운(2007a)이 제기한 대로 논문의 수준 향상이 절실하다. 중국에서 한국어 연구는 서방의 언어학 이론이나 한국 최신 이론을 원용하는 데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했다. 또 통계 수치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어로 발표한 논문이 중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능가하므로 다른 외국어학과와 달리 원어로 된 논문 비율은 높지만 중국인 독자층이 두텁지 못하여 한국어 연구에 관심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

3. 향후 과제

앞 장에서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봤다. 그렇다면 현 단계 성장세를 걷고 있

10) 중국지명(中国知网, <http://www.cnki.net>)은 전국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학술지와 전국 우수 석박사 논문을 소장하는 중국 교육부 산하 학술 디지털 도서관이다. 본 고는 제목이 '한국어' 혹은 '조선어'로 되어 있는 논문을 검색한 결과를 통계 숫자로 이용했는데 이외에도 제목에 '한국어' 혹은 '조선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내용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편의상 위의 제목과 관련된 것만 검색해 보았다.

는 추세를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과제는 어느 개인이나 교육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 교육 부서,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자, 전문가, 한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 모두의 유기적인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교육기관, 교사 자질, 교재, 학술 연구 등으로 나누어서 한국어 교육의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3.1.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한국어 교육의 모든 과정을 관장한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대학 내의 정규 부서로서 학생 모집, 교육 목표, 커리큘럼 작성, 취업 및 교사 채용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한국어 교육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공제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한 양국 교역액의 지속적인 증가¹¹⁾, 대중 한국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¹²⁾, 한류 열풍, 중국인의 유학 붐 등 요소의 작용으로 한국어 인재 수요량이 급증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비해 북경지역에만 하더라도 최근 5년 사이에 4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중국 전역에 근 60개의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수요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다. 먼저 한류 열풍의 지속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며,

11) 중국세관총서(中國海彙總署)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한 양국간의 교역액은 1,599억불로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중 양국 교역액은 1450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제1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12) 중국상무부의 통계의 따르면 2007년 일년 한국의 대중 투자 실행액은 36.8억달러로 제3위를 차지했지만 2008년 1-2월에는 투자 실행액이 7억달러로 제5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노동법 실시와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으로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¹³⁾이 나타나고 있고, 2008년의 금융위기로 한국의 대중 투자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학교는 내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성을 충분히 고려한 한국어 인재 수요를 예측하고 학과 신설을 억제하는 한 편 무분별한 학생 모집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어 인재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30년 전과 같이 학생 모집 중단이나 학과 폐쇄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학교 상호간 협동을 통해 학생 모집을 줄이고 한국어학과의 신설을 자제하면 한국어학과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어학과 커리큘럼의 개선이다. 북경지역 한국어 교육의 환경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시대적 수요와 교육 목표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학과 커리큘럼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병운(2007a:30)에서는 중국의 한국어 전공자는 간단한 상담 통역은 가능하나 자신의 관점이나 또는 현상을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중국의 기타 외국어 전공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어 전공자의 직업 생애에 있어서 봉착하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폭넓은 지식 구조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개인 발전에 불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타전공자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된다면 한국어 전공자가 갖고 있는 우세는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 이에 따라 한국어학과는 시대의 수요에 발맞춰 한국어(주전공)+전공(부전공), 전공(주전공)+한국어(부전공), 2+2 등 과정을 개설하고 경제, 문화 관련 과목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북경지역 일부 대학에서 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어떠할

13) 중국 환구시보(环顾时报, 2008년 2월 18일), 국제선구도보(国际先驱导报, 2008년 2월 15일), 등 중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 선발의 공개성이다. 교사는 한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훌륭한 교사의 초빙은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대학 내 교사 선발이 많이 공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비공개로 진행되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학연 위주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선발에 있어서 학력,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체정신과 협동심이라고 보겠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기관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성원들의 합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관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선발제도를 도입해 상기 능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인재를 한국어 교사로 초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 내의 동일 전공자 선발은 좀 자제하고 경제학이나 문화 등 다양한 전공자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영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등 학과들은 국가 통일 시험을 통해 외국어 능력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한국어 전공자에게는 아직도 통일된 평가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가 각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한국어 능력 평가제도로 TOPIK(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외국어 능력 평가에 기준 차이가 있고 그것이 한국어 전공자의 실력을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기관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학년별로 적절하고 통일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3.2. 교사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말이다. 이렇듯 교사의 자질은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경지역 한국어 교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고학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어 교육에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교사의 전공 영역이나 연령층의 불균형에도 문제가 된다. 북경지역 한국어학과 교사는 문학 전공자가 어학 전공자에 비해 많고 30대 이하 연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4, 50대 중견 교사가 오히려 부족한 편이다.

교사 자질 향상으로 중국 대학 당국이나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한국 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 사실이다. 지금 대학 내의 교사 학력 향상에 대한 격려제도, 재직 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국제교류재단의 연구 펠로십, 중국 한국어 교사 여름방학 연수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교사 자질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어에 대한 어학적 기초가 확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서 재치 있는 교수법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이끌어 양호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한국어 어학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어 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어학, 문화, 경제, 심리 등 다방면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에 애착심을 갖고 강의 열정을 보여야 학습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학 교사라면 수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체계를 세워야 한다.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는다거나 질문을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문 사례를 반드시 메모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수시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오류 사

례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화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교사는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은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다. 교육은 연구의 기초가 되고 연구는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준다. 만약 교육 현장에서 연구 이론을 밀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사반공배(事半功倍)의 효과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환경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교사에 대한 연구 실적을 교사 평가 지표의 하나로 되었지만 아직도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를 계을리 하는 교사들이 허다하다.

넷째, 교사들의 재충전이 필요하다. 중국어 성어의 ‘학무지경(学无止境,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처럼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않고는 시대에 뒤떨어져 강의 내용이 학습자의 흥취를 자아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현재 중국은 90년대 초에 태어난 외동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해 80년대 출생자와 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30대는 물론 40대, 50대 교사들은 쉽게 세대 차이를 느낀다. 따라서 학습자들과의 연령 차이가 클수록 교사의 지식의 업그레이드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3.3. 교재

교육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교재를 떠나서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질 높은 교재의 사용은 교사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다양한 한국어 교재 특히 초급용 교재가 우후죽순마냥 출판되어 교재 선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지경에 도달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100%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어 교육자는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다. 다양한 교재의 출판은 한국어 교육 붐을

상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중복 투자가 될 것이고 시장경제 속에서 일부 교재는 도태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금까지 교재가 없어서 자료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재 편찬에 시급히 서둘러야 할 바라고 생각된다.

교재 개발에 대해 김병운(2007a:32~33)에서 첫째, 구성이 새로운 교재 개발; 둘째, 다양한 학습자 요구 충족시키는 교재 개발; 셋째, 체계가 있고 연계성이 있는 교재 개발; 넷째, 교재 내용 기술의 과학적과 합리적; 다섯 째, 시청각 교재 개발 등을 지향했다. 인재 시장에서 단순한 한국어 전공자를 요구하던 데로부터 전공을 구비한 한국어 인재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경제관련 교재 예컨대 경제학원리, 무역개론, 과학 한국어, 신문방송, 한국개황, 한국문화 등 관련 교재 개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기 교재 개발은 한국어 교육자가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혹은 문화 등 관련 전문가가 주도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누가나 쉽게 한국어 교재를 편찬해 낸다는 것이다. 필자는 교육 현장 경험과 일정한 한국어 관련 지식을 갖춘 자만이 이상적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부 교재 편찬에 있어서 기존의 교재 개발 방식을 버리고 타 전공 교사와 함께 교재의 공동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4. 학술 연구

연구는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연구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국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 연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북경지역

대학은 모두 국립대학으로 교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학과는 대학 내에서 아직도 규모가 가장 작으며 게다가 교사수가 타학과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연구비 수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약소학과인 한국어학과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학 내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적당한 상별 제도를 실시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대학 대부분이 연구 업적을 교사 승진의 주요한 지표로 취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행력에 미흡한 면이 있다. 아직도 일부 교사들은 대학 내의 연구 임무를 완성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연구와 등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상별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학술 연구 교류에 있어서 환경의 개선이다. 한국 내에서의 활발한 한국어 연구, 교육기관간의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 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운영, 중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은 교사들의 학술 연구에 플랫폼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연구 능력을 촉진시키고 한국어 교육 자로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젊은 교사들의 연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로교수들의 사심 없는 배려와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학술대회에서 젊은이의 논문을 두고 혹평만할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로 연구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젊은 교사들은 학술대회 참석과 학술지 논문 게재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연구 수준을 가늠하게 되고 더 발전적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어 연구의 플랫폼 구축이다. 한국어는 중국에서 소어종(小语种)에 속하는 언어로 역사적 원인에 인해 교육 개시 시간이 다른 기타 언어에 비해 늦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전용 학술지가 없다. 물론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의 학회지 '한국어 교육 연구'가 일년에 한권씩 출판되고 있지만 출판 주기가 너무 길고 제작비용 등 원인으로 제시간에 출판되

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대학 교육 기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한국어 교육 전용 학술지를 만들어 중국 내 공식 간행하는 학술지로 출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반 환경과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북경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성기를 맞이하여 교육자와 학습자, 교재 사용, 연구 실적 등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태평무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어 교육의 내적 요인 즉 한국어 교사 자질 향상, 이상적인 교재 개발, 교사 연구 능력 향상 등 과제가 직면해 있고 외부 요인을 살펴볼 때,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어 인재 수요의 급감,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급증 등과 같은 문제가 봉착해 있다. 이에 대비해 본고에서는 교육기관, 교사자질, 교재, 한국어 학술 연구 등 4가지 면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의 더 한층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를 중심으로 중국 교육 관련 부서, 한국어 관련 사업 단체, 및 한국 관련 단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직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국어 교육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09. 4. 30. 투고 되었으며, 2009. 5. 25. 심사가 시작되어 2009. 6. 12. 심사가 완료되었다.

참고문헌

- 강보유(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교육』 제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1-19.
- 김경선(2005),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연구』 제3호,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민족출판사 ; 525-539.
- 김기일(200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태학사 ; 31-42.
- 김병운(2007a),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어제와 오늘」, 2007년연례학술발표대회,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 26-38.
- 김병운(2007b), 「중국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인 교수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기대」, 제1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재중한국어문화교육교수회; 1-6.
- 김석기(2005), 「중국의 한국어 교재 사용 실태 및 연구 현황」, '황해권 한중 교류의 역사, 현황과 미래'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중국해양대학교 ; 26-47.
- 노금송(1999),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의 해결 방안-북경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8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243-252.
- 문영자(2007), 「강소성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제1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재중한국어문화교육교수회 ; 23-30.
- 박종금(2000),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태학사 ; 54-63.
- 손정일(2003),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어 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217-237.
- 신향화(2007), 「산동반도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한국어 교육연구』 제5호,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 189-200.
- 이춘희·백련화(2007), 「중국 동북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개선」, 제1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재중한국어문화교육교수회 ; 31-41.
- 장효단(2007),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 연구-중국 대외한어 정책과

- 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조항록(2005), 「국내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과 특징», 우리말학회 전국학술대회발표논문집, 부산대학교 ; 1-20.
- 조항록(2007), 「전환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내, 국외, 중국」, 2007년연례학술발표대회,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 1-25.
- 최희수(2005),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0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211-226.
- 하동매(2002),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방향」,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3집, 연변과학기술대학, 태학사 ; 529-536.
- 齐晓峰(2008), 韩国语教育现状、问题与发展构想, 清华大学教育研究, 2期, 115-118页, 清华大学.

■ 국문초록

중국 북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노금송

본고에서는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제반 환경과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북경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성기를 맞이하여 교육자와 학습자, 교재 사용, 연구 실적 등에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여 만족만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내적 요인을 볼 때 한국어 교사 자질 향상, 이상적인 교재 개발, 교사 연구 능력 향상 등 과제가 직면해 있고, 다음 외부 요인을 살펴볼 때,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어 인재 수요의 급감, 중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급증 등과 같은 문제가 봉착해 있다.

이에 대비해 본고에서는 북경지역 한국어 교육 기본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 점들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교사자질, 교재, 한국어 학술 연구 등 4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교육기관, 교사 자질, 교재, 한국어 연구

■ 论文摘要

中国北京地区韩国语教育现状及发展构想

魯錦松

近年来在中国各地韩国语教育得到了空前的发展，主要表现在教师和学生的数量、教材的开发、研究业绩的提升等方面。尽管在上述方面取得了骄人的成绩，但也有不尽人意的地方。首先，从韩国语教育内在因素来看，面临着继续提高韩国语教师素质、亟待开发精品教材、尽快提升教师的研究能力等诸多问题。其次从外部因素来看，我们也同样面临着各级各类机关对韩国语教学单位的支持力度不够、由于经济危机而带来的韩国语人才需求减少、由于中国国内韩国语教学单位的剧增引起的供需失衡等各种问题。

为此，本文以北京地区为主，介绍了韩国语教育基本状况，并找出了当前存在的问题。论文对存在的问题，分成教学单位、教师素质、教材、学术研究等4个方面，提出了今后发展的方向。

[关键词] 韩国语教育，教学单位，教师素质，教材，韩国语研究

■ Abstract

On the Present State and Development Plan of Korean Language
Teaching in Beijing, China

Lu Jins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developed at record scale these years in terms of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textbooks development, progress in research, etc. Despite all the achievements mentioned above,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First, some problems still exist with the internal factor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such as teachers' qualities to be improved, quality textbooks to be developed, teachers' research abilities to be enhanced. Second, some external obstacles hinder progres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like inadequat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decreasing demands for Korean majors brought about by the recent economic crisis,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for Korean majors with the sharp increas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in China.

This paper introduces the present state of Korean language teaching in Beijing, with emphasis on the problems existing in education institutions, teacher's quality, textbooks, intellectual research, etc, for the purpose of offering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 institution, teacher's quality, textbook, Korean language research